연극계의 전반적 위축과 연극 축제의 양적 팽창

이 화 원 | 연극평론가 · 상명대공연학부교수

축제마다조금씩차이는있지만지방자치정부로부터의보조금이결코풍족하지않은가운데, 오히려예술가중심의 집행부가축제를 발의하고이끌어 가면서 예술적자율성이 확보되고있는 셈이다. 결국 최근전국 각지역에서 성황을이루고 있는연극 관련축제들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문화 행사로서 축제의예술성을예술가주도하에전문적으로, 자율적으로구축해나가야하는문제가가장중요한현안으로떠오른다.

연극계의위축과팽창의명암

지난몇 년간우리 연극계의위기를논하는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연극계의 현실을 근본적으로개선할 만한뚜렷한 방안이 여전히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999년에 이어 지난 2000년도에도 우리 연극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악전고투하며, 작품창작에있어서양적, 질적빈곤에허덕였다. 그런 한편, 올해 들어 기업의 문화 기부금에 대한조세감면혜택을철폐하는법안이구체화되면서 연극과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몰이해는 갈수록증증이다. 삶과일, 그리고삶과일을다스리는 정치가문화와예술과어우러져사회가신명나게율동하듯움직여나갈수는없는것일까.

연극현장의전반적위축과는대조적으로최근눈에띄는 팽창을 보이는 분야가있다면 연극 관련 학과와 연극 관련 축제의 숫자와 규모일 것이다. 지난 3년간 연극관련학과의수는무려3배가량늘어나근 50여개에이른다. 여기에영화및영상으로까지범위를넓히면80여개가량의학과가포진되어있다. 전국의연극관련학과의수가팽창됨에따라연극관련학과학생들의연극축제인젊은연극제의경우그규모가최근급격히확대되지않을수없었다. 올해9회째를맞은젊은연극제의참가학교수는무려 30개교에이른다. 3년 전인‘ 제6회 젊은 연극제 의 경우 참가 학교수는6개교에불과하였던것을기억해보면놀랄만한현상이아닐수없다. 그 뿐아니라전국각지를휩쓰는지역축제의열풍과더불어전국각지의연극관련축제들의 숫자와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도 국내에서 개최된 예술 관련 축제의 수는 100건을상회하고그중공연예술관련축제는 40여개에 이른다. 그 가운데 연극 축제만 14건에 달한다. 올해들어지난5월경기도남양주의‘ 세계야외공연축제 와 7~8월경상남도‘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등이

신설되었다. 한편기존의연극관련축제중가장오래된‘ 서울연극제 의 경우도 올해부터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어왔던서울무용제와병합하여‘ 서울공연예술제 로규모를확산할예정이다. 한편올해5회째를맞은수원화성의‘ 국제연극제 도조직구도를개편하고 새출발을하였다. 그뿐아니라비제도권과언더그라운드음악인, 예술인, 연극인들의축제인‘ 독립예술제 2001 의경우지난9월7일에서 23일까지홍대앞전역을무대로음악축제, 전시, 공연, 거리축제등을아우르는대규모행사로거듭나고자한다고한다.

대학로를중심으로기성연극계의창작작업은여전히 열악한 작업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고투하면서 예년의부진을씻어낼만한눈에띄는작업을제시하지못하고있는반면, 연극관련 교육 기관과연극관련축제들은 양적으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표면과이면을 차분히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를느낀다. 이글에서는우선연극관련축제들의현황을 살펴보고 축제들의 행보가우리 연극에어떠한 영향을줄수있을지, 그리고결국어떠한기여를모색할 수있을지생각해본다.

연극관련축제들의지역성과자율성

한국연극협회와전국의지부, 지국들에의하여주도되는‘ 서울연극제 나 전국연극제를 제외하고 지역 연극 축제의 서장을 연 것은 춘천에서의 마임축제와 인형극제일 것이다. 5~6월에 개최되는‘ 춘천마임축제 ’와8월의‘ 춘천인형극제 는마임극과인형극이라는개별장르에종사하는연극인들에의하여주도되었으며 오늘날지역사회주민들과예술가가공동으로자부심을느낄수있는축제로서지난 13년동안꾸준한성장을이루어내었다. 연극에서의마임극과인형극이라는 차별화되는장르에초점을맞추고춘천이라는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차별성을 내세울 수있는 모범적 연극 축제로자리매김을한셈이다.

그이후연극계전반에걸쳐연극축제에대한관심과논의를불러모은계기가된것은과천시에서의‘ 마당극 축제 로 기억된다. 1997년 국제극예술협회 (I.T.I.) 총회를 유치하면서 서울에서의 ‘ 세계연극제 ’와 나란히 선보이게 된 이 축제는 1997년에 이어 1998년 지역 주민들의 정성어린 공조 하에 성공적으로출발하였다. 그러나과천시행정당국이예술감독의 업무마저도 행정조직 구도 속에 편입시키고자 하면서, 예술감독직이 연이어 교체되는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00년‘ 과천 마당극제 라는 공식 명칭으로 재출범하면서축제는예술적방향성및자율성을지속적으로모색해야할과제를안고있다.

한편 1989년창설되어경상북도거창에서근 1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 나 올해 창설된‘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와 ‘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의경우, 해당지역에서작업하는연극인의개인적 노력에의하여축제가창설되고주도되고있다는공통점을가진다. 축제마다조금씩차이는있지만지방자치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결코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예술가 중심의 집행부가 축제를 발의하고 이끌어 가면서 예술적 자율성이 확보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는 연극관련축제들의운영에있어, 지역사회를대표하는 문화 행사로서 지역 정부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면서도, 축제의 예술성을 예술가 주도 하에 전문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가장중요한현안으로떠오른다.